

국제결제론 – 전자무역결제시스템

◆ 트레이드카드시스템

➤ 개념

- 정보통신기술을 무역거래에 수용하여 서류를 중심으로 한 기존 결제제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고안된 결제방식
- 1994년 세계무역센터의 프로젝트로 시도
- 최초의 목적은 인터넷이 중소기업 무역의 비용절감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..
- 1997년 세계무역협회의 자회사로 트레이드카드사(www.tradecard.com) 설립
- 2001년 트레이드카드시스템 시작
- 인터넷 상에서 국제무역거래를 하기 위한 기업간 전자상거래 기반구조
- 신용평가, 계약체결, 계약이행의 전자적 점검, 수출입서류의 전송, 대금지급 보증 및 결제 등을 통합한 시스템
- 단, 지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은행이 개입하지만, 신용공여나 금융제공 등의 기능은 하지 않으며, 이러한 기능은 트레이드카드사의 위탁에 의해 별도로 지정된 결제금융기관에서 수행

◆ 트레이드카드시스템

➤ 관련 당사자

- 매매당사자 :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로서 트레이드카드시스템에 등록하고, 트레이드카드시스템이 지원되는 국가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함.
- 트레이드카드사 : 구매주문서의 검토, 선적서류의 검토, 결제은행에 대한 지급지시 수행
- 결제금융기관 : 수입업자 거래은행에서 대금을 받아 수출업자 거래은행에 송금하는 자금이체 금융기관으로 사전에 트레이드카드사로부터 권한 위임
- 신용공여기관 : 수입업자의 신용 평가 후 신용한도를 부여하는 기관.
수입업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이 기관이 대금 지급(ex. 프랑스의 Coface)

➤ 지급방식 유형

1) 자동승인지급(Auto Approved Payment) 방식

- Coface로부터 수입업자의 신용평가를 받아서 대금 지급을 보증
- 수입업자가 작성하여 전송한 구매주문서를 수출업자기 승인하여 계약 체결

◆ 트레이드카드시스템

- 수출업자 및 관련기관이 전송한 서류를 트레이드카드사가 검사하고, 결제금융기관(JP Morgan Chase Bank)이 대금을 중간에서 전송 역할
- 신용공여기관이 수입업자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측면에서 신용장과 유사

<절 차>

수입업자의 신용한도 요청 → 신용한도 배정 → 구매주문서 작성 및 전송 → 승인한 주문서를 수출업자에게 전송 → 전자서명(무역계약 체결) 후 전송 → 화물 선적 → 선적서류 트레이드카드사로 전송 → 계약서와 선적서류 검토 → 결제금융기관에 지급지시 → 대금지급

2) 수입업자승인지급(Buyer Approved Payment) 방식

- 대금지급의 최종결정을 수입업자가 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서류검사가 끝난 후 수입업자가 수출대금지급 승인
- 수입업자의 신용이 매우 중요

3) 송장제시(Invoice Presentation) 방식

- 서류검토가 없으며, 선적서류를 수출업자로부터 수입업자에게 전송하고 수입업자가 대금지급시기와 금액 결정. 신속한 거래가 가능

◆ 블레로시스템

➤ 개념

- BOLERO(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) : 선하증권 전자등록기구(www.bolero.net)
- 선하증권 등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화하는 전자결제시스템
- 1990년 “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 규칙” , 1996년 UNCITRAL의 “전자상거래모델법” 제정 등 전자상거래 법적 환경 정비
- 전자메시지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암호화기법이 발전하면서, 선하증권을 포함한 선적서류 전체의 상업화 움직임 시작
- 1994년과 1995년에 시험기간을 거쳐 1998년 SWIFT와 TT클럽이 각각 50%씩 지분을 출자하여 BOLERO International 설립
- 1999년부터 bolero.net를 개시하고, 전자서류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메시징 서비스와 선하증권을 전자화하고 소유권 이전을 관리하는 권리등록(Title Registry) 서비스 개시

◆ 불레로시스템

➤ 의의

- 비용절감 : 국제무역거래에서 총비용의 7%가 선적서류를 종이로 발행하여 발생
- 선적서류의 지체 해결 : 체선료 및 화물선취보증서 발행 불필요

➤ 절차 : “불레로넷” 이라는 시스템 이용

화물선적 → B/L 전송(수출업자를 송하인 및 소지인으로, 수입업자를 지시인으로 지명), 수출업자는 추가 선적서류 전송 → 수출지 매입은행을 B/L 담보권자 겸 소지인으로 지명하여 전송 → 매입은행은 B/L 검토하여 수출업자에게 대금 지급하고, 수입지 은행을 새로운 담보권자 및 소지인으로 지명하여 전송 → 수입지 은행은 서류 검토 후 수입업자에게 대금 청구 → 대금 지급 → 수입지 은행은 B/L의 담보권 해제 후 수입업자를 소지인으로 지명하여 B/L 전송

◆ 불레로시스템

➤ 불레로 SURF(Settlement Utility for managing risk and Finance)

- 불레로에 새로운 부가가치서비스로서 선적서류의 결제과정을 전자화하기 위해 불레로에서 여러 은행들과 함께 2002년 개발한 전자결제시스템
- 자동화된 서류시스템(중앙메시지 처리소)에 의해 서류의 일치성 여부 점검
- 기존의 화환결제방식을 수용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결제시스템
- 따라서 신용장, 추심 등 구체적인 대금결제의 유형이 SURF에서 약정한 결제방법(신용장, 추심, 청산계정, 보증신용장 등 총 26가지)에 의해 수행
- 은행의 신용공여 기능 포함
- 절차 : 수출업자 SURF 약정에 따라 서류 준비(SURF를 소유권자로 작성) → 중앙메시지 처리소에서 SURF로 전송 → 서류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전송 → 수입업자를 선하증권 소유권자로 등록 및 전송 → 수입업자 거래은행에 서류 일치성 통지 → 대금 이체 → 수출업자에게 대금 결제